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7가지 정희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정희준 지음 | 김화경 · 안세민 옮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Copyright © Ha-Joon Chang 2010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0 by Bookie Publishing House, Inc.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Intercontinental Literary Agency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Intercontinental Literary Agency와의 독점 계약으로

한국어 판권을 부키(주)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지은이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배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교전학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무르탈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 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다들리 걸아치기」, 「레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이 있다.

옮긴이 김희정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영국에 살면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이렇게 죽을 것인가」, 「인간의 품격」,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채식의 배신」, 「거짓말쟁이 호머 피그의 진짜 남북전쟁 모험」, 등을 비롯해 「간인 도시 연대기」 시리즈인 「모텔 엔진」, 「시낭송의 현상금」, 「악마의 무기」, 「행운의 돌판」이 있다. 인쇄면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을 거쳐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혼돈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등이 있다.

2010년 11월 4일 초판 1쇄 발행
2017년 3월 3일 초판 105쇄 발행

지은이 장하준

옮긴이 김희정·인세민

펴낸곳 부키(주)

펴낸이 박운우

등록일 2012년 9월 27일 등록번호 제312-2012-000045호

주소 03785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길 15 산성빌딩 6층

전화 02) 325-0846

팩스 02) 3141-4066

홈페이지 www.bookie.co.kr

이메일 webmaster@bookie.co.kr

ISBN CODE 978-89-6051-119-4 03320

책값은 무표지에 있습니다.

절록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읽는 7가지 방법

하나. 도대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Thing 1, 2, 5, 8, 13, 16, 19, 20, 22

둘. 정치는 결국 시간 낭비이다?

Thing 1, 5, 7, 12, 16, 18, 19, 21, 23

셋. 계속 국민소득은 오르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내가 사는 건 그대로일까?

Thing 2, 4, 6, 8, 9, 10, 17, 18, 22

넷.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기업가 정신도 투철해서이다?

Thing 3, 10, 13, 14, 15, 16, 17, 20, 21

다섯.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Thing 3, 6, 7, 8, 9, 10, 11, 12, 15, 17, 23

여섯.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별 도리가 없다고?

Thing 1, 2, 3, 4, 5, 11, 13, 14, 15, 20, 21

일곱. ...또는 그냥 순서대로 죽 읽는다...

차례

서론 — 11

Thing 1 — 19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 3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 47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 57
인터넷보다 선택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 69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 81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 94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 1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 124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 142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 154
아프리카의 지게받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 170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 184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 198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 209
기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이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 223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 23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 252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 263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 276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 289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 301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인 필요가 있다

Thing 23 — 316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 — 327 저자 주 — 342 찾아보기 — 354

이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췄던 전작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이전트 아이반 멀케히는 더 폭넓은 독자들의 관심 분야를 더할 새로운 책을 쓰도록 나를 끊임없이 격려했다. 미국 블룸즈버리 출판사의 편집자인 피터 기네이는 편집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주었을 뿐 아니라 책의 방향을 잡을 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라는 제목을 제시해 책의 분위기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국 앨런 레인 출판사의 편집자 윌리엄 굿태드는 편집 작업을 이끌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도록 훌륭하게 일해 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책 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을 주었다. 던컨 그린은 모든 장을 읽고 내용뿐 아니라 편집 면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다. 제프 하코트와 디팍 나이어는 여러 장을 읽고 현명한 충고를 해주었다. 디크 베제머, 크리스 크레이머, 셀라자 페넬, 페트릭 이맘, 테보라 존스턴, 에이미 클라츠킨, 베리 린, 케니아 파슨스, 밥 로슨도

각 장을 읽고 소중한 의견을 주었다.

이 책에 담긴 세세한 정보들은 유능한 연구 보조원들이 없었더라면 찾기 못했을 것이다. 바르가브 아드바리유, 하산 이크람, 안토니오 안드레오니, 유렌드라 바스넷, 무하마드 이르판, 비리우스 칸추차, 프란체스카 라인하트 모두 감사하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공해 준 정승일 박사와 이범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는 나를 정서적으로 굳건히 지탱해 줬을 뿐 아니라 책의 모든 내용을 읽은 뒤 좀 더 논리 정연하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딸 유나는 몇몇 아이디어를 들려주자 열네 살짜리라고 모기엔 놀라울 만큼 지적으로 성숙한 반응을 보여 주어서 나를 무척 기쁘게 했다. 아들 진규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지지는 물론 책에서 사용된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이 책을 가족에게 바친다.

세계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지원으로 2008년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겨우 막아 났음에도 이 사건은 대공황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경제 위기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0년 3월, 일부에서 불황이 끝났다고 성급히 선언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기가 회복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금융 개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완화한 결과 금융계에 새로운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물 부문은 돈줄이 막혀 있다. 이 거품이 터지는 날에 세계 경제는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는 더블딥 현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사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번 금융 위기의 여파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업과 가계 부문은 원상 복구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이번 위기로 말미암아 생긴 엄청난 재정 적자를 만회하느라 정부는 공공 투자와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경제 성장, 빈곤 문제, 사회 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금융 위기 과정에서 직장과 집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는 경제의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재앙은 결국 따지고 보면 198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다. 우리는 항상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각 개인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기가 가진 생산성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왔다. 기업들은 관련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좋은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부의 창출이 극대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효율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잘못된 평등주의를 믿고 부의 창출 범위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주로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는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능력이 없다. 좋은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도, 그렇게 할 동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줄곧 들어 왔다.

이 말을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 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 소유의 기업과 금융 기관들을 민영화하고, 금융 및 산

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없앴으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한편 소득세를 인하하고 복지 지출을 줄였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이런 조치들 때문에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역동적이고 부유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밑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 썼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였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잠시 옆으로 제쳐 놓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유 시장 정책은 금융 위기 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부자 나라들에서는 막대한 신용 확대 조치로 이 문제를 덮어 왔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임금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노동 시간은 늘어났다는 사실을 신용 확대에 힘입은 소비 붐으로 눈가림해 온 것이다. 부자 나라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활수준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혀 향상되지 않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1인당 성장률은 3분의 2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처럼 비록 불평등은 심화되었지만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부분적인 자유화만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자유 시장 정책은 도입하기를 거부한 곳들이다.

결국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만 맞고, 최악의 경

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된다. 이 책에서는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받아 온 사실들이 꼭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허술한 추측과 왜곡된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반자본주의 성명서는 아니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그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 자유 시장 체제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지난 30년 동안의 성적표가 말해 주듯 최선의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방법이 있음을 보여 준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수많은 기술적인 지식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지식은 너무 복잡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부실 자산 구매 조치의 효과나 G20의 필요성, 은행 경영화의 장단점이나 경영진에 대한 적합한 보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살달이 익히는 데 시간을 들이거나 배경 지식을 갖춘 사람이 우리 중 몇몇이 될 것인가? 한술 더 떠서 아프리카 빈곤 문제, WTO 업무,

국제결재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 등의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온갖 종류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식품 공장, 정육점, 식당 등의 위생 기준이 어때야 한다는 것은 전염병 학자가 아니어도 모두 아는 사실이 아닌가. 경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띄워 놓은 장밋빛 색안경을 벗어 탈라는 것이다. 이 색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단순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이제 안경을 벗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자.

자유 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시장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반대하는 소리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Thing 1 참조). 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부에 대해 널리 퍼진 불신이 근거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Thing 12, 21 참조). 우리가 탈산업화된 지식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일부 정부들이 추진해 온 대로 국가 산업의 쇠퇴에 무관심하거나 암묵적으로 환영해 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Thing 9, 17 참조). 트리클다운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면 부지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정체를 직시하게 되어
서, 지금까지 들어 온 것처럼 이런 감세 정책이 우리 모두를 더 부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었
음을 알게 될 것이다(Thing 13, 20 참조).

세계 경제가 겪어 온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의 결과도 아니다. 최고 경영진과 은행가들의 수입
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의 임금은 정체를 벗어나
지 못하고 노동 시간은 계속 늘어난 현상은 어떤 신성불가침한 시장
의 법칙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Thing 13, 14 참조). 우리가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 경쟁에 휘말려 일자리를 걱정하게 된 것이 끊임없는
교통 통신의 진보 때문만은 아니다(Thing 4, 6 참조). 지난 30년 사이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와 점점 더 유리되고, 급기야는 오늘날의 경제
적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은 결코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Thing 18,
22 참조). 열대 기후, 불리한 지리 조건, 경제 발전에 맞지 않는 문화
등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가난한 나라
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Thing 7, 11 참조).

치차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특히 규칙을 정할 수 있
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의 방향과
결과도 결정이 된다. 누구도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의도한 결과로 이
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내려진 결정들이 모두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렸더
라면 지금 다른 모습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

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들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런 후에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고 불공평
해도 그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결정에 희생되는 운명을 피
할 수 없다.

이 책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실제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이 책은 그러나 '초보자를 위한 경제학 입문서'는 아니다. 그보다 더
좁으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 넓은 책이다.

이 책은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에서는 오래 설명하고 넘어갈 만한
기술적인 부분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입문서보다 좁다고 하겠
다.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건너편 것은 결코 이 책의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다. 경제학의 95퍼센트는 상
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퍼센트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
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내
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은 경제학적 원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문제들에 그 원칙들을 적용
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경
제학 교과서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계가 있을 때에만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이 책은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입문서 이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상의 책이기도 하다. 고급 경제학 서적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적 자료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고급 경제학서 수준을 넘는다고 하겠다.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이론들에 도전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받아들이는 '실증적' 자료를 예 의문을 제기하라고 하면 '비전문가' 독자들은 부담스럽다고 느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믿는다면 맞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다음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법이 단순하지 않은 것들이다. 사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 문제들에는 단순한 해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권익마저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체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료에 상한선을 정하면 건물주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동기를 상실한다. 정부가 판매 가능한 금융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면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독특한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유 시장의 전도사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